**빠라맛타까경**

(Paramaṭṭhaka suttaṃ- Upholding a View-최상에 대한 여덟 게송의 경, 숫따니빠따 Sn4.5, 전재성님역)

**최상에 대한 여덟 게송의 경**

**[Paramatthakasutta](\*1)**

주해(\*1)

이것에 대한 한역 경전은 의족경(義足經)의 경면왕경이다. 세존께서 사왓티에 계실 때에 여러 외도의 스승들이 ‘이것이 최고다. 저것이 최고다’라고 논쟁을 하고 있었다.

왕은 그들의 언제나 계속되는 논쟁을 듣다못해 눈먼 봉사의 무리들을 모이게 하여 코끼리 앞에 세웠다. 그들에게 코끼리를 만지게 하고 각자에게 어떻게 생겼는가를 물었다.

코를 만진 자는 코끼리가 쟁기처럼 생겼다고 대답을 하자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꾸짖었다. 벽의 기둥처럼 생겼다고 하는 등의 모든 묘사를 듣고 ‘그대들 외도의 교의들은 이와 같다’고 하고는 외도의 무리를 추방했다.

한 걸식자가 그 사건을 듣고는 세존께 말했다. 세존께서는 수행승들에게 ‘외도의 무리는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부분만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다. 그들은 해탈을 궁극으로 하는 가르침을 모르기 때문에, 각자의 견해에 집착하여 논쟁하는 것이다.’고 가르치며 이 경을 설한 것이다.

1. [세존]

“그것이 최상이라고 지내며,

사람은 그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여깁니다.

그밖에 다른 것들은 그것보다 저열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논쟁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2. 본 것이나 들은 것이나

계행과 맹세나 인식한 것 속에서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있다고 보면서

그는 그때에 그것에만 집착한 나머지

그 밖의 것은 모두 저열한 것으로 봅니다.

3. 어떤 것에 집착하여 다른 것은 저열하다고 본다면,

착하고 건전한 님들은 그것이 속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본 것이나 들은 것이나

계행과 맹세나 인식한 것에 수행승은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4. 지식(\*1)에 대해서도,

계행과 맹세에 대해서도,

이 세상에서의 도그마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남과 비교하여

동등하다거나 열등하다거나 우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5) 그는 얻은 것을(\*2) 버리고

집착하지 않으며,

지식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파들 가운데 있더라도

당파에 따르지 않고,

어떤 도그마에도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주해(\*1) ‘선정의 성취’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주해(\*2) ‘붙잡은 것’을 말한다.

6. 이 세상의 양극단과(\*1)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의 다양한 존재에 대해서도

원하는 바가(\*2) 없습니다.

생각한 뒤에 도그마에 사로잡히는

어떠한 피난처들도 그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7. 그에게 이 세상에서 보여진 것, 들려진 것,

또는 인식된 것으로 만들어진 티끌만한 지각도 없습니다.

견해에 집착하지 않는 그 거룩한 님을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판단하겠습니까.

8. 어떠한 것도 만들지 않고 선호하지 않아,

그들에게 받아들여진 도그마는 없습니다.

거룩한 님은 형식적인 계행이나 맹세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피안에 이르러 이러한 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해(\*1) ‘접촉과 접촉의 원인 등의 두 가지 경계에 대한 것’을 말한다. 십이연기에서 접촉의 원인은 여섯 가지 감각의 장(6입)을 의미한다. 그러나 역자의 생각으로는 여기서는 영원주의나 허무주의에 입각한 유무(有無)나 단상(斷常)의 극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해(\*2) ‘갈애’를 말한다.

-최상에 대한 여덟 게송의 경이 끝났다.

Suttanipata  
4. Aṭṭhakavaggo

4-5 Paramaṭṭhaka suttaṃ

800. Paramanti diṭṭhisu paribbasāno  
Yadutatariṃ kurute janatu loke,  
Hitāni aññe tato sabbamāha  
Tasmā vivādāni avitivatto,

801. Yadattani passati ānisaṃsaṃ  
Diṭṭhe sute silavate1- mute vā,  
Tadeva so tattha samuggahāya  
Nihinato passati sabbamaññaṃ.

802. Taṃ vāpi ganthaṃ kusalā vadanti  
Yaṃ nissito passati hinamaññaṃ,  
Tasmā hi diṭṭhaṃ va sutaṃ mutaṃ vā  
Silabbataṃ bhikkhu na nissayeyya.

1. Silabbate - simu

[BJT Page 254] [\x 254/]  
803. Diṭṭhimpi [PTS Page 157] [\q 157/]      lokasmiṃ na kappayeyya  
&yen;āṇena vā silavatena vāpi,  
Samoti attānamanupaneyya  
Hino na maññetha visasi vāpi.

804. Attaṃ pabhāya anupādiyāno  
&yen;āṇepi so nissayaṃ no karoti,  
Sa ce viyattesu na vaggasāri  
Diṭṭhimpi so na pacceti kiñci.

805. Yasasubhayante paṇidhidha natthi  
Bhavābhavāya idhavā huraṃ vā,  
Nivesanā tassa na santi keci  
Dhammesu niccheyya samuggahitaṃ.

806. Tassidha diṭṭhe va sute mute vā  
Pakappitā natthi aṇupi saññā,  
Taṃ brāhmaṇaṃ diṭṭhimanādiyānaṃ  
Kenidha lokasmiṃ vikappayeyya.

807. Na kapapyanti na purekkharenti  
Dhammāpi tesaṃ na paṭicchitāse na [PTS Page 158] [\q 158/]      brāhmaṇo silavatena neyyo  
Pāraṃgato na pacceti tāditi.  
Paramaṭṭhakasuttaṃ niṭṭhitaṃ

Sutta Nipāta. Attaka Vagga

5. Paramatthaka Sutta.   
Upholding a View.

796. People upholding views say all other's views are low

And they do not go beyond disputes.

797. Seeing some development in oneself, out of a seen, heard, virtues, or an experience,

People cling to views and see all other's views as low.

798. The wise said, that, that is the bond, for some reason to see others as low

Therefore the bhikkhu should not measure on account of a seen, heard, an experience

or virtues.

799. On account of knowledge or virtues do not hold a view as this is proper

Do not think, I'm equal, inferior or superior

800. Dispel the self view, do not think, 'I know'

The wise are without disputes and views.

801. Do not wish for the two extremities of being and non-being here, or hereafter,

Think discriminately about the Teaching and have no roosting places.

802. Do not have any thoughts or the smallest perception, about the seen, heard, and experienced

The Brahmin is without any views and has nothing to think in this world.

803. Do not get established even in the Teaching, and think it is proper to honour it,

A Brahmin is not led on by virtues, crossed over, he does not turn back.